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 프로그램

东北亚地区环境体验活动

北東アジア青少年環境グローバルリーダー育成事業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олодёжный
экологический Симпозиум



테 마 「생물다양성 보전」

2016년 8월 19일 (금) ~20일 (토)
러시아연방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시

주최 : 러시아연방 연해주, 도야마현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글로벌리더 육성사업

8월 19일 (금) : 첫째날

7 : 30	기상 · 체조 · 샤워
08 : 30 ~	조식
10 : 00 ~	개회식 개회인사 · 연해주지사 · 블라디보스토크국립경제서비스대학 국제언어학교장 · 연해주 천연자원 · 환경보전부장 · 도야마현이사 · 생활환경문화부 차장 나가사카 유이치 외
	참가자들 활동발표 (8 단체) · 중국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 한국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 일본 (도야마현) · 러시아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지방)
11 : 30 ~ 12 : 00	휴식시간
12 : 00 ~ 13 : 30	참가자 활동발표 계속
13 : 30 ~ 14 : 30	중식, 포스터세션
14 : 30 ~ 16 : 15	환경보호활동 (12~20 명/1 팀)
16 : 15 ~ 16 : 30	휴식시간
16 : 30 ~ 18 : 15	환경보호활동 계속, 심포지움 선언 (환경선언) 의 제안 · 토론
18 : 15 ~ 19 : 00	석식
19 : 00 ~ 19 : 40	기념식수
19 : 40 ~ 21 : 30	레크레이션 (문화, 스포츠, 게임등 프로그램에 참가)
21 : 30 ~ 22 : 00	야식
22 : 00	샤워 · 취침

8월 20일 (토) : 둘째날

07 : 30	기상 · 체조 · 샤워
08 : 30 ~ 09 : 15	조식
09 : 30 ~ 13 : 30	익스커션 (2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2~3 곳 방문) 수족관, 보트연습센터, 식물원, 청소년센터, 해양생물학 연구소등
(11 : 30~12 : 00)	(보트연습센터에서 휴식시간 또는경식)
13 : 30 ~ 14 : 30	학교로 이동 · 중식
14 : 30 ~ 15 : 30	교류회 리허설
15 : 30 ~ 16 : 15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직원들과 환경관련 활동
16 : 15 ~ 16 : 45	휴식시간
16 : 45 ~ 17 : 45	폐회식
18 : 00 ~ 18 : 45	석식
19 : 00 ~ 21 : 00	교류회, 콘서트
21 : 30 ~ 22 : 00	자유시간, 야식
22 : 00	샤워 · 취침

성게는 인간의 건강을 위한 귀중한 영양원

1. 자치단체 : 인혜주
2. 발표자명 : 페레호제바·다리아 (Perchozheva Daria) 나호트카시
「아동 및 청소년 투이리츨, 건학의 집」
3. 활동명 : 성게 조사
4. 활동기간 : 2015년 7월~9월
5. 활동장소 : 인혜주, 나호트카주변 후미
6. 활동참가인원 : 2명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인간에게 있어 성게는 매우 소중한 생물자원이다. 나호트카주변의 만에는 어느정도 성게가 서식하고 있는지 어느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8. 발표요지
목적 : 성게는 인간의 건강을 위한 귀중한 영양원이 되는지를 조사한다.
과제 : 성게에 대해서 정보수집, 나호트카주변 성게 조사, 성게의 가치 조사

2015년 6월~9월 만나만에서는 성게조사를 실시했다. 참고서를 활용해서 성게의 분류를 특정했다.

구형이 2종류, 평판형이 2종류로 모두 4종류를 특정했다.

드물게 보이는 것은 모래부치염동성게 (Echinocardium cordatum) 와 에키나라크니우스 파르마 (연일성게류, Echinarachnius parma) 이다.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둥근성게 (Strongylocentrotus nudus) 이다. 인간활동의 영향이 적은 바다 후미에는 성게 수가 비교적 많았다.

2015년 9월 21일 모브나해안에서는 많은 새치성게 (Strongylocentrotus intermedius) 가 집중해 있었다. 산란을 위해 여기에 모여있는 것은 아년가 추측했다.

조사결과 :

- 1) 성게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귀중한 영양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성게의 남소와 정소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가 암예방, 혈압정상화, 체내로부터 방사성물질을 제거한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고 위장관련 병을 완화시키며 심장혈관계, 감각신 및 생식신의 기능을 개선한다.

- 2) 동해에 면해 있는 나호트카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6 종류의 성게가 서식하고 있다.
 조사해 본 결과 새치성게 (*Strongylocentrotus Intermedlus*), 둥근성게 (*Strongylocentrotus nudus*), 연잎성게 (*Scaphechinus mirabilis*), 회색 연잎성게 (*Scaphechinus griseus*) 라는 4 종류를 발견했다.
- 3) 새치성게 (*Strongylocentrotus Intermedlus*) 가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숫자가 적었다.
- 4) 해수욕장 이용자의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게의 숫자는 줄어든다. 해변 이용자는 성게를 식용으로 채취하기 때문이다.
- 5) 자연속에서 성게의 역할이 매우 크다. 성게가 바다의 위생상태를 지켜주고 있다.
- 6) 성게는 훌륭한 「일기예보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게의 행동을 관찰하면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을 알수 있고, 예방조치를 취할수 있다.
- 7) 학교에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성게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다.
- 8) 멸종 위기에 직면하는 생물이 되기 전에 성게의 포획을 제한해야 한다.

To know is to love

1. 자치단체 : 도야마현립 다이몬고등학교
2. 발표자명 : 아라키 요시노 · 야스이 아이 · 나카오카 치나즈
3. 활동명 : 다이몬고등학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태계조사
4. 활동기간 : 2016년 5월부터
5. 활동장소 : 다이몬고등학교 및 학교주변
6. 활동참가인원 : 4명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지금까지 다이몬고등학교에서는 「국제이해·국제협력」에 관한 활동과 함께 「환경문제」에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환경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정보코스 과제연구에서 환경을 테마로 한 연구를 실시해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에 노력해 왔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생물을 테마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지역생태계를 알기 위해 학교주변 생물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생물다양성 추진에는 우선 주변에서 가까운 생물을 「아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8. 발표요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곳에서 보게 되지만, 일본의 현상황에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다이몬고등학교에서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물다양성이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는 대답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아주 높아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해서 침투해 있지 않은 것을 엿볼수 있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생물다양성에 관심이 낮은 이유는 주변생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에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고등학교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에서 볼수 있는 생물조사, 눈으로 확인관찰 조사
2. 소화되지 못한 펠릿(pellet)내용물에 의한 서식개체종 조사

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일상생활속에서 좀처럼 볼수 없는 자신 주변에 생활하는 야생생물의 모습을 학교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의 지역에 발신하고자 생각한다.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과 생각해나가는 기회로 만들고 싶다.

9. 발표시 발표매체유무

있음 PowerPoint

검은머리갈매기가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지역 생태계복원에 관한 프로젝트

- 1 자치단체명 : 랴오닝성
- 2 발표자명 : 루 밉웨 (랴오닝성 실험중학교 고1)
왕 헤니 (동북육재 외국어학교 고2)
- 3 활동명 :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가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지역 생태계복원에 관한 프로젝트
- 4 활동기간 : 2015~2018 년
- 5 활동장소 : 판진시 슈완타이하구 자연보호구 난싸오헤보호센터
- 6 활동참가인원 : 그룹활동의 참가인원 20 명
프로젝트참가 자원봉사인원 2000 명
- 7 발표요지 :

검은머리갈매기가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지역의 갯지렁이 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갯지렁이알을 인공양식하고, 검은머리갈매기의 이동지역에 뿌리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산둥성룽챙, 허베이성레팅과 랴오닝성 단둥에서 갯지렁이 모체를 채취하고 그후에 판진으로 운송후 지역 부화장에서 인공부화시킨다. 부화된 알을 순서대로 검은머리갈매기 이동지역으로 나르고 뿌린다. 또한 모체의 출생지로도 돌려준다.

이 프로젝트는 새우의 부화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을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고 자금 절약도 된다. 또한 부화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갯지렁이 알의 자연성장과 번식을 지켜보고 갯지렁이자원과 검은머리갈매기의 이동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3년 연속으로 실시하고 있다. “새들에게만 지원하고,인간이 가져가면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갯지렁이 자원이 서서히 부활되고 점차 검은머리갈매기의 이동지역의 생태계도 회복되고 있다.

다음 3 개의 요점에 대해서 순서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1. 환경보호활동그룹의 유래에 대해서 소개한다.
2.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 보호협회,갯지렁이에 대해서 소개한다.
3. 검은머리갈매기가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지역의 생태계복원에 관한프로젝트에 참가·진적상황에 대해서 소개한다.

- 9 발표시 발표매체 유무
있음 (Power point)

온새미로

양구고등학교 생태연구동아리

1. 온새미로 소개

온새미로는 ‘자연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을 가진 한국어로 양구지역의 생태를 연구하는 양구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2. 연구활동

A. 산불 발생 지역의 식생 변화에 대한 연구(2016년)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지역을 찾아가 산불 지역의 식생이 어떤 변화를 이루는지 조사하고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 환경 변화에 따른 개느삼의 자생지 조사(2015년)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한국에서 멸종 위기종 식물인 개느삼의 자생지를 조사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개느삼이 어떻게 번식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3. 체험활동





금강산가는 옛길 걷기
대회



림사협약 내임산 용
늪 탐방



림사협약 내임산 용
늪 탐방



대학교수의 생태환경
특강



대학교수의 생태환경
특강



학교 숲 가꾸기



학교 숲 가꾸기



화소키우기



화소키우기

4. 봉사활동



숲 체험 프로그램 봉사
활동



숲 체험 프로그램 봉사
활동



양구의 자연 환경 사진
전시회



양구의 자연 환경 사진
전시회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

양서류는 자연환경의 지표이다

1. 자치단체명 : 하바로프스크지방
2. 발표자명 : 세르듀코바 아나스타시아 (Serdyukova Anastasiya)
하바로프스크지방립 교육시설 아동창조센터 「파라다」
소베츠키야·가반시 (Sovetskaya Gavan)
3. 활동명 : 양서류의 동식물상 조사
4. 활동기관 : 2015 년 여름
5. 활동장소 : 하바로프스크지방
6. 활동참가인원 : 2 명 (제 15 호 학교직원들과)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 인간활동이 양서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8. 발표개요 :

하바로프스크지방은 러시아연방극동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는 청개구리 (*Hyla japonica*), 두꺼비 (*Bufo gargarizans*), 참개구리 (*Pelophylax nigromaculatus*), 내발가락도롱뇽 (*Salamandrella keiserlingii*), 무당개구리 (*Bombina orientalis*) 등 여러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다.

하바로프스크지방에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는 서식하는 지방에 따라서 「남방」 과 「북방」 이라는 두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양서류는 인간이 환경에 끼친 영향을 받는 지표생물이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척추동물문에 속해있는 동물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멸종해가는 것이 양서류라고 한다. 20 세기말에 과학자들은 양서류가 전멸하는 다수의 케이스에 주목하고 있었다.

유미목(Urodela, 도롱뇽류), 무미목(Anura, 개구리류)가 과별적으로 멸종해가는 주요원인은 자연 (병의 만연,기후요인) 과 인간활동(농업,산업활동)에 의한 것이다.

양서류는 농업해충을 먹는다. 많은 양서류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야행성 조류가 먹지 못하는 해충을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양서류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

많은 양서류는 물과 관련있는 생애를 보내고 있다. 수중에 산란하고 유생은 물속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많은 종류의 양서류의 성체는 대부분의 시간을 육지에서 보내고 있다.

학교 학생들은 많은곳에서 양서류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목적은 양서류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 조사결과를 학교행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양서류를 보고하기 위해서이다.

나도 무관심하게 지낼수 없었다. 2015 년 여름에 소베츠키야·가바니스키지구 마이스키 (Maiskii) 지역주변에서는 여러생물의 서식공간 (비오톱) 에 양서류가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는지 필드워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중 마이스키지역 주변의 양서류종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아무르산개구리 (*Rana amurensis*), 두꺼비(*Bufo gargarizans*)이다.

두꺼비가 좋아하는 서식지는 맑이고, 북방산개구리와 아무르산개구리는 난테(Nante) 시냇물의 기슭을 좋아한다. 마이스키마을 중심부에서는 양서류를 볼수 없었다. 저층건축물 주변에서는 종의 다양성이 낮고 난테시냇물 주변의 삼림이나 공원에서는 종의 다양성이 높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에트·가바니스키지구의 양서류에 미치는 인간활동의 영향이 크지 않다. 두꺼비와 같은 몇종류는 주택지에도 보인다.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두꺼비는 한국과 중국에도 서식하고 있다. 북방산 개구리는 일본에도 서식하고 있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나라에 살고 있지만 생물상과 식물상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함께 생물다양성을 보호해 나가자!

9. 발표매체

PPT 사용

환경보전활동(푸른환경지킴이, 학교,집에서의 환경보전활동)

- 1 자치단체명 : 대한민국 충청남도
- 2 발표자명 (소속명) : 충청남도 부여군 백제중학교 3학년 신혜리
- 3 활동명 : 환경보전활동(푸른환경지킴이, 학교,집에서의 환경보전활동)
- 4 활동기간 : 2016년 상반기
- 5 활동장소 : 충남 부여군 일원
- 6 활동참가인원 : 환경동아리 20여명
-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 지역환경에 대한 탐구,토론행동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아리 활동에 참가함.
- 8 발표요지 (도표를 포함) : 환경보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자 함.
 - 1) 소개 : 외국인이 보는 한국과 충남부여군, 백제중학교를 소개함
 - 2) 환경보전활동 :
 - ㄱ.푸른환경지킴이 환경보전 활동(대기,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여 우리지역의 오염도를 알아보고 주변 농식물을 파악하는 생태모니터링활동을 진행함)
 1. 학교에서의 환경보전 활동
(환경봉사활동, 급식건너없는날, 텃밭기꾸기, 환경관련책읽기를 시행함)
 2. 집에서의 환경보전 활동
(절전노트작성, 쓰지않는전기콘센트뽑기, 삼푸적게쓰기, 에어컨대신선풍기와 부채사용)
 - 3) 미래의 환경보전: 미래의 환경보전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함
- 9 발표시 발표매체 유무 : PPT 자료 활용예정

주변에서부터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지킨다

1. 사치단체명 : 중국 하이룽샹성
2. 발표자명 : 장 아오 (하이룽샹성 자오둥시 제 11 중학교 1학년)
3. 활동명 : 주변에서부터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지킨다
4. 활동기간 : 2016년 4월 12일
5. 활동장소 : 학교 캠퍼스내
6. 활동참가인원 : 40명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1. 식수그룹 「그린 천사」를 설립했다.
 2. 「화분에 꽃을 기르고 화분을 돌보며 녹지를 소중히 하고, 백색공해 (비닐봉투에 의한 오염)를 피하자」는 것을 제안했다.
 3. 「환경 보디가드」가 되자.
8. 발표요지
 - 1) 학교에서 「그린 천사」라는 이름의 식수활동을 실시
올해 4월 12일에 학교의 캠페인으로 학생들이 식수활동하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 1학년 9반의 학생위원들은 「그린 천사」라는 나무심기 그룹을 만들어 식수그룹은 리더로서 모두를 인솔해 식수활동을 해왔다. 장소선택 및 구멍파기까지 식수그룹의 멤버들이 순선해서 모두와 함께 즐겁게 나무 묘목을 심었다.
 - 2) 백색공해를 피하자.
우리는 전교생이 「 화분을 기르고 심은 나무를 돌보며 녹지를 소중히 하고 백색 공해를 피하자」라고 제안했다. 나는 어댑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캠퍼스안에서 작은나무 한그루를 선택해 돌보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주최하는 「활기 넘치는 지구를 만들자」라는 서명활동에 참가해 환경보전에 대한 마음가짐과 결심을 달아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다. 주변에서부터, 한방울의 물에서부터, 1와트의 전기에서부터, 한정된 에너지를 절약하자.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자. 일회용 컵이나 젓가락의 사용을 줄이자. 적극적으로 환경보전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해 지구환경을 보호·개선해 나가자.
여러분, 스스로 행동하십시오. 함께 환경을 지켜나갑시다.
9. 발표시 발표매체 : Power point

*어댑터 프로그램 : 일정한 규칙 (식목)을 양자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처럼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제도

- 활동보고자료 -

자치단체명	경상남도	동아리명	RE-(재)vering Emerge
발표자명	박근우(창원고등학교) Park KeunWoo (ChangWon High School)		
활동명	'온실기체를 줄여서 지구환경을 보호하자'		
활동기간	2015년 3월 ~ 2016년 6월 현재		
활동장소	학교내 및 학교밖 인관, 사이버 (SNS-facebook)		
참가인원	총 11명 (박근우, 김명웅, 김장현, 박준형, 정재운, 김준영, 명희수, 정민규, 이강인, 이봉욱, 한정원)		
발표방법	PPT를 활용한 발표		

● 활동을 시작한 경위

본 동아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과학과 환경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프로젝트모임입니다.

주된 활동으로는 인류의 공동해결과제인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각자 흥미있는 교과목과 연결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온실기체를 줄여서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라는 큰 주제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 활동내용요약

저희 동아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학교생활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온실기체 줄이기 활동'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크게 두 가지 분야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버려진 물품을 이용한 재활용품 만들기이고, 다른 하나는 온실기체도 줄이고 걸식야동도 돕는 음식물남기지 않기 캠페인인 '다섯 손가락 더'활동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제작활동은 버려진 물건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생활용품만들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버려진 탁자, 천, 우유팩 등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지구환경시계, 화이트보드 지우개, 급식카드집, 간이에어컨, 샤워기 홀더, 종이박스 스피커, 필통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샤워기 홀더를 테스트해본 결과 물의 양을 1/3을 줄였고, 종이박스 스피커는 3년째 사용 중입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온실기체도 줄이고, 그 활동으로 걸식야동도 돕자는 의도로 시작된 '다섯 손가락 더'캠페인활동입니다. 급식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남긴 음식물 양을 학생수로 나누었더니 학생 1명당 다섯 손가락만 더 먹으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 활동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및 운영중이며, 활동대상은 재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그리고 사이버상의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에 대한 오프라인활동으로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급식소 현장설문조사분석과 캠페인관련 피켓홍보활동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활동으로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사진을 게재하면 지역기업인의 후원을 받아 1장당 400원의 적립금으로 지역 및 아프리카 기아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SNS(facebook)에서 '다섯 손가락 더'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캠페인 홍보를 위해 자동차스티커, QR코드와 캠페인내용을 소개하는 다양한 활동지와 열쇠

고리를 제작하였습니다. 캠페인 참여 UCC를 만들어 유튜브(Youtube)에 게재하여 음식물 쓰레기 및 온실기체과다배출 문제가 우리들의 공동해결과제임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2016년 6월 21일까지 총 5770장의 사진이 등재되었고, 총 5회 지역의 결식아동 및 아프리카 기아를 후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의 달 행사와 학교축제에서 동아리무스운영을 통해 재활용품 및 기후변동관련물전시를 하였고, 경남기후환경네트워크와 연합하여 멸종동물열쇠고리만들기와 버려진 커피캡을 이용한 화분만들기 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결과 저희들은 2015년 경남청소년기후변화프로젝트 발표대회에서 경상남도지사상(최우수상)을, 2016년 2월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녹색기후상(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최초로 경남기후환경네트워크와 온실기체배출을 줄이고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활동은 저희들의 학교생활을 풍성하게 하였으며, 학과공부뿐만 아니라 인류의 당면과제인 기후환경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미래의 기후 환경 실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기후 환경변화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그린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1. 활동명 : 2015 해변표착물 조사

2. 활동기간 : 2015. 09. 01 ~ 2015. 12. 31

일자	2015. 11. 01	2015. 11. 14	2015. 11. 28
장소	주문진 영진해변	양양 하조대 인구해변	강릉경포대 해변

3. 참가 인원 : 10명 내외

4. 활동 시작 경위

◇ 목적

- 해안의 표착물을 수집 · 분석하여 종류별로 중량을 조사함으로써 플라스틱 등의 인공물에 의한 해안의 오염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해양 환경 보전 대책, 폐기물 대책 및 어장 보전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 해변 표착물 조사활동을 통해 바다의 환경을 지키려는 마음을 키우고, 동해 주변국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환경문제들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세계적인 시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데 있다.

◇ 조사방법

- 계절별 조사를 원칙적으로 하되, 조사 시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설정하여 실시 (조사는 9~11월 중 1회 실시)
- 조사범위는 원칙적으로 파도치는 방향에서 육지방향으로 연속적으로 가로×세로 10m의 구획을 3구획(30m) 설정

조사구획내 표착물을 구획별로 다음의 8종류로 대분류한 후 중량 및 개수를 측정해 표착물의 표면기재사항 등에서 소분류별로 국내 및 해외 제조품으로 나누어 개수 조사

- ① 플라스틱류 ② 고무류 ③ 발포스틸렌류 ④ 종이류
 ⑤ 직물류 ⑥ 유리·도자기류 ⑦ 금속류 ⑧ 기타 인공물



[주문진 영진해변 표착물 조사]



[양양 하조대 인구해변 표착물 조사]



[강릉 경포대 사근진 해변표착물 조사]

활동사진

